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 Monthly
# 나눔과행복소식 (29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9

## 미션
MISSION

#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 핵심가치
CORE VALUE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조직문화성장실과 함께하는

# 9월 나행리더스미팅 (09.26)




조직 및 업무, 인사변경으로 부팀장님 이상 9월 리더스 미팅이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짧게 언급해주셨고, 이어 조직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이 조직문화성장실의 배경과 함께, 비전, 목표, 기대효과 그리고 역할과 책임(R&R)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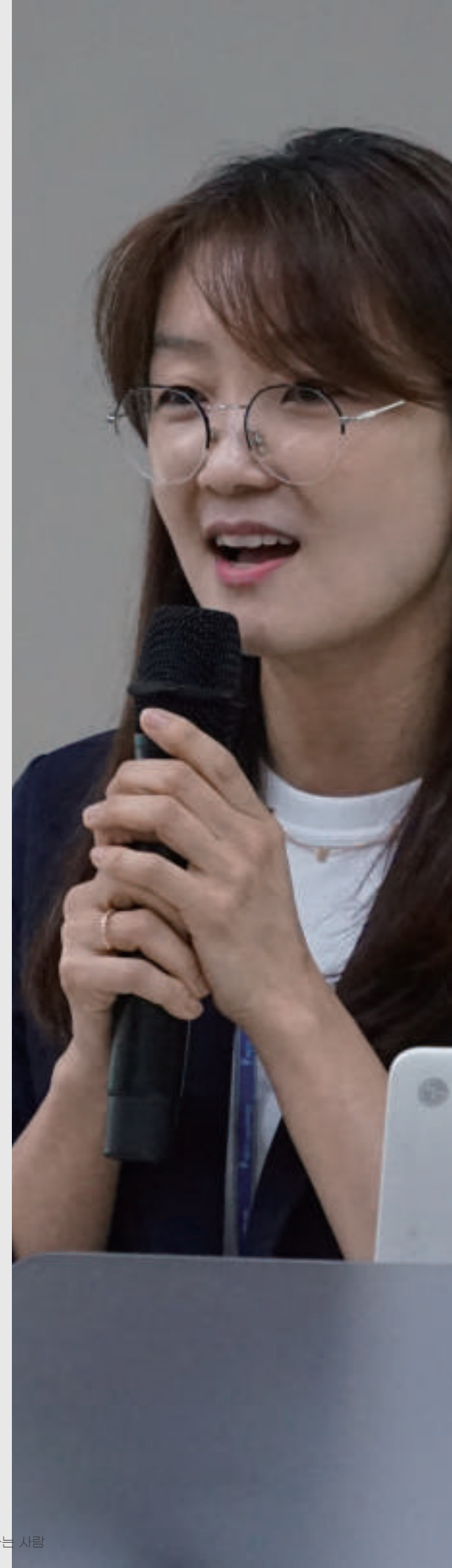
> 조직문화성장실은 지나온 병원 성장의 흐름속에서 앞으로의 조직, 문화, 성장에 대한 방향과 함께 나행인을 위한 HR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병원다운 조직문화를 선도하며 직원과 조직의 성장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 10월부터 개편되는 조직도에서 인사팀이
> 조직문화성장실로 옮겨지고, 경영전략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 통합되어집니다.
>
> 조직문화성장실은 다시 조직문화팀과 HR팀으로 나뉘게 되며
> 그 속에서 팀원들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함께하게 될 HR팀 박인영 팀장님에 대한 임명장과 함께 간단한 소개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인영 팀장님은 지난 20년이 넘은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방향에 맞게 HR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함께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나가길 약속하셨습니다.










#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09.11 / 09.25)

본원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재활생활'이라는 교육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갑작스레 직면한 질병,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하반기에 2회차(8회기)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1회기 교육은 9월 11일(수), '척수손상&회복기 재활의 이해'에 대한 재활의학과 서휘 부장님의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본원에는 척수손상재활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35명의 척수손상 참여자가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교육에서는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와 전문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9월 25일(수), '뇌질환&회복기재활의 이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재활의학과 김완호 원장님께서 참여자, 보호자가 뇌질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며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시기별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강의 시작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키워드를 제안하였고 강의 중간, 마무리 단계까지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을 활발히 이어 나가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 보호자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 모두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

#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 행사 (09.17)

‘환자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참여자(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모두가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가로세로 퀴즈'가 진행되었고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환자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바로 옆칸으로 이동하여 '올바른 개인 보호구(PPE) 착의 및 탈의 순서 맞추기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평소 감염 예방을 위한 절차를 다시 한번 익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랜덤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져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받았으며,
행사 기념으로 마련된 포토박스에서는 직원들이 서로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4층 재활치료실에서 참여자(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서약 나무'에 자신들의 소망을 적어 걸며 따뜻한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바른 손 위생 시점과 방법'에 대해 간단한 체험과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분들 역시 랜덤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고, 소정의 사은품 받았으며 참여자분들의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더 나은 병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안전한 병원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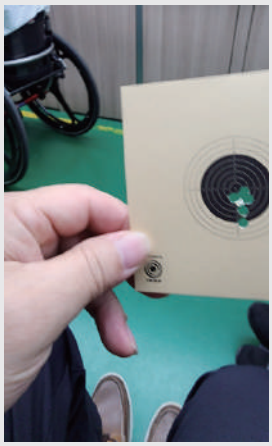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스포츠체험 (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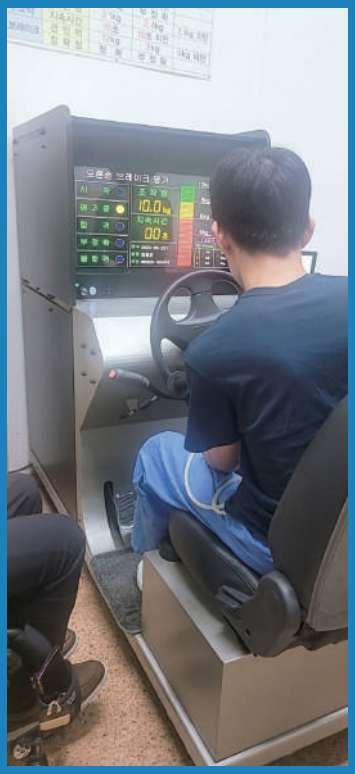
스포츠 중에 사격종목체험을 위해 이○○님과 영도에 위치한 사격 연습장을 다녀왔습니다. 9월인데도 아직 더운 날씨였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포츠를 경험한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격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권총과 소총 둘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나도 잘 쏘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총의 무게가 무거웠고 손이 흔들려서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내시설이 깔끔하게 되어있었고 사격에 대해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밖으로한걸음씩 (09.20)

운전면허는 있으나 하지장애로 인하여 면허조건을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운전 시 손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작동해야하는 운전기기가 필요한조건)로 바꾸기 위해 남부면허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운동능력 평가 시엔 핸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진행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 하였습니다.

장애당사자로써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재활코치님께 퇴원 후 자가로 운전하게 될 때 필요한 핸드콘트롤러의 장착 위치와 종류, 조작 방법 등 새로운 운전방법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셨으며 코치님의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웃음치료 프로그램 (09.07)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과 함께 첫 번째 토요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45명의 참여자, 보호자가 참여하였으며 함께 노래를 배우고 다 같이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치료는 '웃음'이란 즐거운 행동을 통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웃음이라도 재활치료처럼 매일 연습하다보면 재활치료의지 향상은 물론 신체와 정신,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본원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3시 30분, 9층 회의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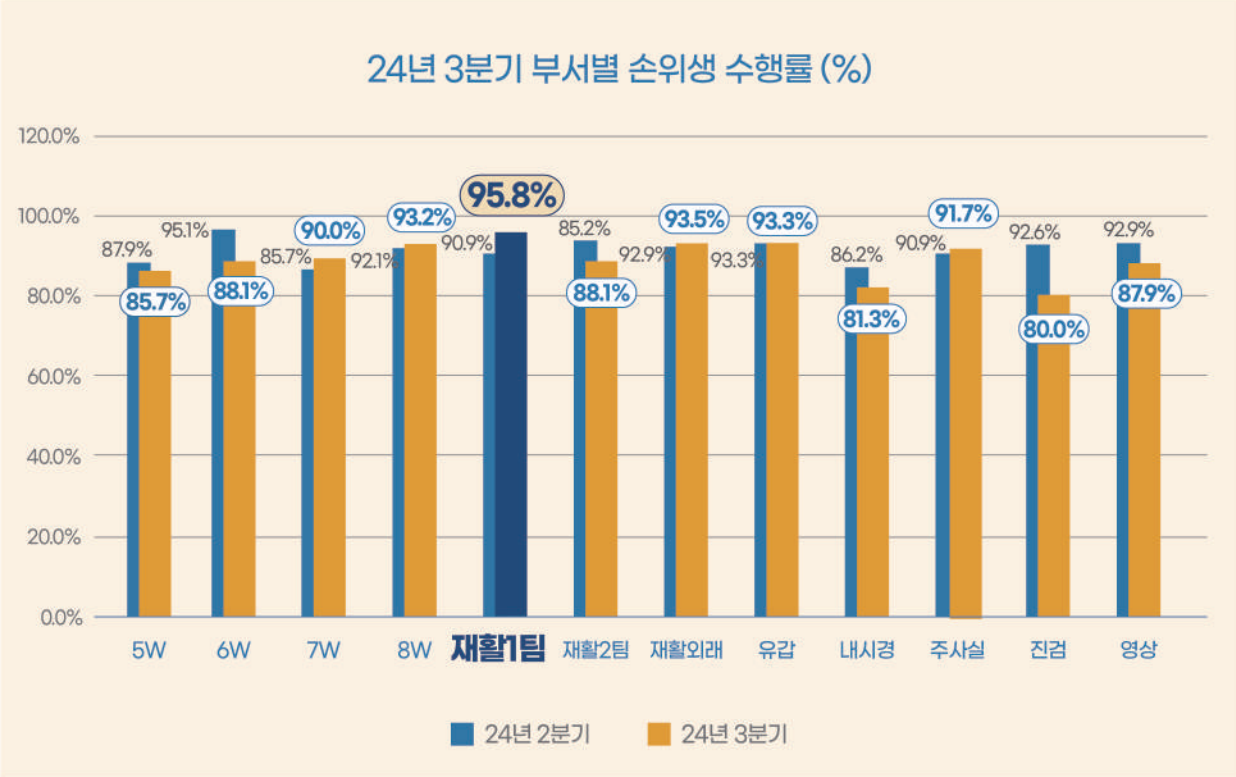


#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9.06)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가을에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하루, 매달 한번씩 다가오는 행사인 6층 일상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낮병동 8월 우수 출석왕·자립왕 시상식이 6일 점심때 진행되었습니다.

- 우수 출석왕 : 정○○님, 김○○님
- 우수 자립왕 : 강○○님, 김○○님

꾸준한 출석과 자립으로 한 달 동안 재활에 열심을 다하신 참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 자리였습니다.




# '재활치료1팀' 3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9.23)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3/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재활치료1팀이 95.8%로 우수부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24년 9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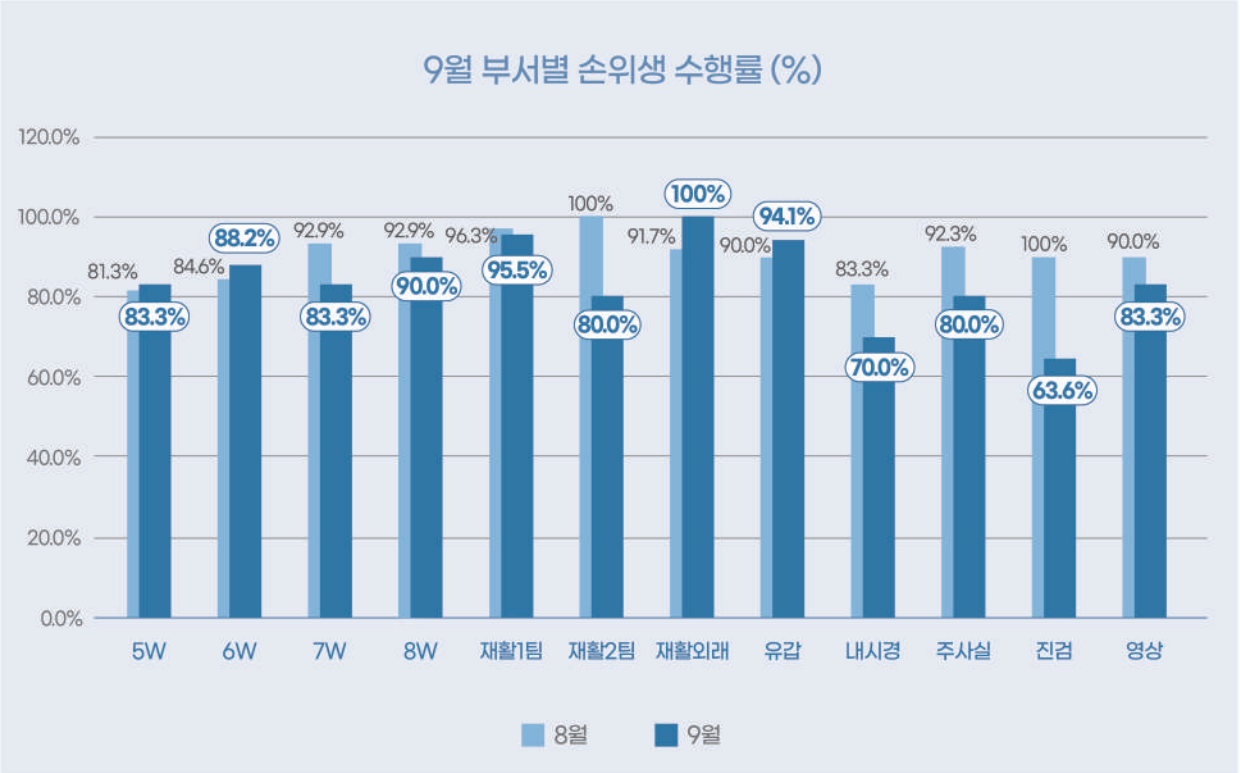
##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 | |
|---|---|
|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09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
| 모니터링 **장소** | 환자 접점 부서 |
| 모니터링 **방법** |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
| **손위생 수행률**(%) |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
| 모니터링 **결과** | 2024년 8월 결과와 비교 분석 |

## 2. 지표 결과

| 목표(%) | 전체 관찰건수(건) | 수행건수(건) | 결과(%) | 전 분기 증감률 |
|---|---|---|---|---|
| 90 | 178 | 152 | 85.4% | **- 6.1 %** |

##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24년 3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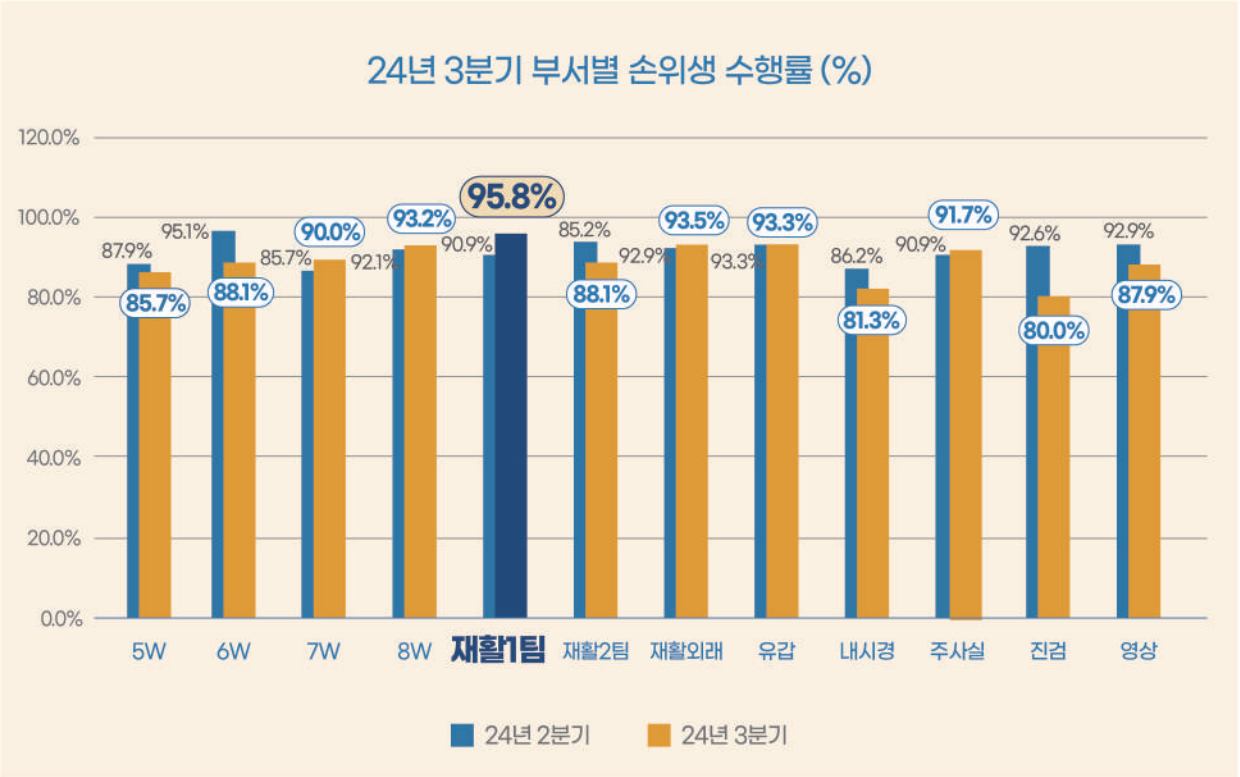
##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 | |
|---|---|
|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
| 모니터링 **장소** | 환자 접점 부서 |
| 모니터링 **방법** |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
| **손위생 수행률(%)** |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

## 2. 지표 결과

| 목표(%) | 전체 관찰건수(건) | 수행건수(건) | 결과(%) | 전 분기 증감률 |
|---|---|---|---|---|
| 90 | 480 | 430 | 89.6% | **- 1.7%** |

##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8

##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다

회복기 재활치료 참여자 성○○님은 타국에서 약 30년 정도 생활 해오다 산에서 낙상한 이후로 뇌경색 발병하여 3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참여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가족 사항, 심리·사회적 사항, 경제적 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자가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보호자인 누나 한 명과 해외에서 일해오며 업무적으로 소통해왔던 선배 한 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던 때에 발병했고, 한국에는 생활할 집도, 휴대폰도 없었기에 보호자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산을 오가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계셨습니다.

## 재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참여자는 '한국이 많이 변해서 적응이 안 된다, 모든 게 꿈같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며 모든 정보, 제도가 낯선 상황이라 보호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보호자 또한 타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한국 생활을 시작한 터라 각종 복지제도 신청 시 절차의 복잡성, 제도 이해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행했지만 여러 가지 참여자의 개인적인 상황,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의료급여 2종 결정이 났고,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종 신청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보호자와 수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제 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 진행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지지하며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필요했고 보호자-행정복지센터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급여 1종 결정, 임대주택 신청 시기 확인 및 신청,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확인을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호자와 사회사업팀의 지지 속에서 참여자는 원내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입원 시부터 퇴원계획을 수립, 점검, 변경해 나간다는 것

퇴원상담 시 퇴원 시기, 퇴원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지, 돌봄서비스가 충분한지, 이동 및 직업복귀 계획 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보호자는 '다 큰 동생의 인생에서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물어보기도 조심스럽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보호자와 따로 또 같이 상담을 진행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심스레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지인(선배)의 요청으로 치료 후 함께 일을 도울 계획으로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담배꽁초, 연기 가득한 환경에 자연스레 노출될 것에 대해 우려하여 보호자와 사회복지사는 거주지를 따로 마련하는 것을 권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로서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지인이 당분간 빈방을 내어주어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기까지는 홀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재차 확인하고 퇴원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퇴원을 계획하였기에 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10월에 해운대구청과 케어플랜회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내용을 논의하고, 다양한 지원 속에서 직업 복귀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함께할 예정입니다.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응원합니다!

##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남성</td><td>50대</td><td>급여 1종</td><td>뇌경색</td><td>2021.12.</td><td>2023.12 ~ 입원 중</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독거가구<br>■ 주보호자 : 누나</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참여자 치료의지 약화 및 내·외부환경에 대한 인식 저하<br>■ 배우자 및 부모님의 우울감 매우 높음<br>■ 배우자 지지체계 약화로 퇴원 후 부모 거주지에서 돌봄제공 계획 및 일상생활 계획 수립 필요<br>■ 사회복귀 후 직업활동의 어려움</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급여형태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종), 보장보험 및 저축금액 없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한국 거주지 없음 → 지인 도움으로 일시적 거주지 마련 → 추후 임대주택 신청 예정</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경제적 문제<br>■ 법적 문제<br>■ 주거문제 : 퇴원 후 한국에서 정착할 예정이나 거주할 곳 없음<br>■ 돌봄문제 : 가족 지지도는 좋으나 지지체계의 약화로 퇴원 후<br>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필요<br>■ 직업복귀 희망(운전 필수)</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퇴원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지인의 오피스텔로 퇴원 예정<br>■ 치료계획 : 일상재활센터(낮병동)<br>■ 이동수단 : 대중교통, 추후 자차 운전</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br>■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유선, 대면 상담</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부산시청 법률자문<br>■ 임대주택 공고 일정 안내 및 신청<br>■ 행복주택 신청 안내 예정<br>■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10월 연계 예정<br>■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월 연계 예정</td></tr>
</table>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해나행과 해피秋게더 (09.13)

## 소망포토타임, 소망가득 캘리그라피, 민속놀이 한바탕, 행운의 룰렛게임



추석(秋夕)이란 '가을 저녁',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입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소망포토타임', '소망가득 캘리그라피', '민속놀이 한바탕', '행운의 룰렛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속놀이인 윷놀이, 배드민턴 제기에서 미션을 통과하면 다양한 간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운 룰렛 쿠폰을 드림으로써 재미를 더하였고 소망정원에서 포토타임, 캘리그라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추석 분위기를 즐기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더운 날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많은 참여자, 보호자, 해나행 가족이 참여해주셨으며 해나행만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 소소한 추억을 또 하루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 행사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여러분의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해피秋게더 추석 특선영화 상영 (09.12 / 09.13)



매년 추석이면 TV에서 추석 특선영화를 상영합니다. 본원에서도 추석을 맞이하여 정겨운 추석의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석 특선영화 '우리들의 ○○○ ○○', '탈○'를 9층 회의실에서 상영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가 참석해주셨으며 영화 관람을 통해 함께 모여 웃고 소통하며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 이벤트 프로그램

# ‘가죽공예 나만의 스프링백 만들기’ (09.26)

이번 달에는 ‘가죽공예 스프링백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공통질문으로 ‘내일 예상치 않은 하루의 휴가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속마음 토크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가죽을 직접 바느질하며 잠시나마 고민을 내려두었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가죽공예는 처음이었지만 대부분 바느질에 능숙하여 금방 익숙해지셨고 옆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나만의 스프링백을 완성하였습니다.

참여한 및 보호자는 가죽공예 시간을 통해 기분 좋은 목요일 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 우리는 가족입니다.
## 9월의 신규입사자



야간전담과 강내윤 과장



야간전담과 박해리 과장



야간전담과 최우식 과장



재활간호팀(6W) 김보라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소영 간호사



영상의학과 박지영 과장



영상의학팀 진용태 방사선사



재활치료2팀 정승진 작업치료사

##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 환자안전파트 양희지 팀원 (09.03)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후원자분들을 위한 감사이벤트 (09.13)

2016년 12월에 작은 소모임이었던
지역사회공훤위원회로 시작한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더 다양한 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늘려나가기 위해
2020년에 비영리 법인으로 허가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21년에
지속적인 공익사업 활동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법정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행복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본인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여서,
나눔을 통해서 나 역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며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였고,
나행동에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신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눔은 순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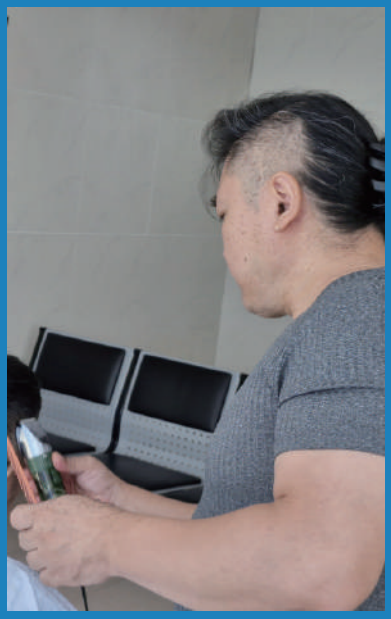
나눔 실천이 지속성을 지닐 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 이미용 서비스 (09.10 / 09.11 / 09.13)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자원봉사자께서 참여자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추석 전에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하여 총 66명이 신청해주셨고 가족들과 만나기 전 깔끔하게 단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본원의 나눔에 동행해 주시는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후원 및 기부 안내

사회 전반에 걸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고,
누구나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나눔을 함께 만들어가며 후원자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정기후원 | 일반후원 | 결연후원 | 기업후원 | 물품후원

후원에는 정기후원과 일반후원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결연후원, 기업후원, 물품후원 등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및 기부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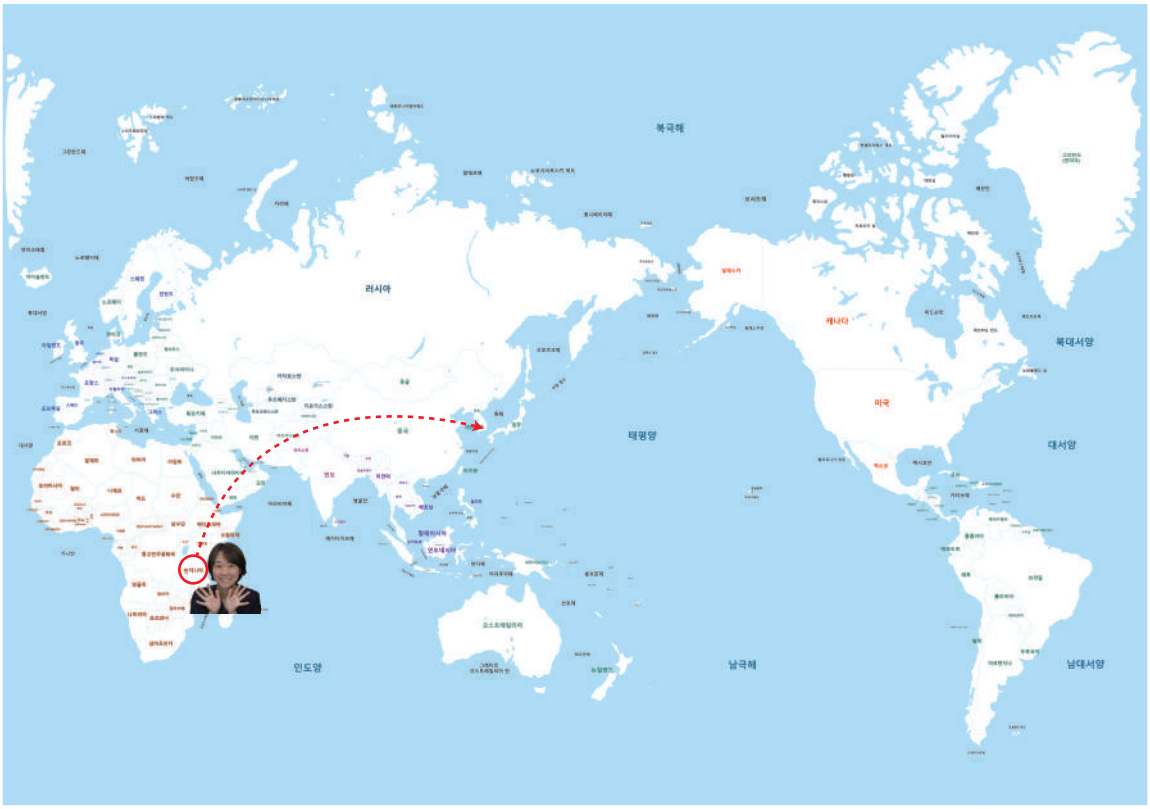
< 후원 안내 QR코드 >
☎ 후원문의 : 051.744.0106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후원계좌 : 농협 351-1138-1520-13

< 나행동 홈페이지 QR코드 >
www.나행동.com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휴직하시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가신 김인혜 과장님께서 전해 온 소식




박다희 김인혜 선진, 서현이네 기도편지

- 9월 이야기, 정착

Habari za asubuhi~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지난 한달간 세종류의 언어로 아침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컴파운드 (집들이 모여 있는 블럭) 경비아저씨, 적응하기까지 운전을 도와주시는 기사아저씨께는 스와힐리어로,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는 영어로, 만나고 새롭게 관계하게 되는 선교사님들과는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하는 대화는 거기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휴직하시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가신 김인혜 과장님께서 전해 온 소식

## ● Hamjambo, Hello,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탄자니아 아루샤의 응가람토니(Ngaramtoni) 지역 및 마사이족 거주 구역의 의료사역을 위해 이사한 박다희, 김인혜, 박서진, 박서현 가정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지난 한달간 현지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며 열심히 아루샤에 정착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 ● Shule, School, 학교



아이들은 아루샤에 도착한지 3일만에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첫날에 많이 울었고, 서현이는 아직도 아침마다 울면서 등교하지만 그래도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둘 다 같은 반에는 한국인이 없지만 옆반과 앞반에 한국인 형, 누나, 동생들이 있어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진이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아빠는 의료봉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봉사를 해야 해? "

너희는 그저 엄마 아빠와 같이 즐겁게 지내 주는 것, 학교를 잘 다녀 주는 것이 큰 봉사라고 했는데 저의 대답에 뭔가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서진이를 보며 고맙고 한편으로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 ● Hospitali, Hospital, 병원

저희가 근무하는 응가람토니 지역의 파모자 병원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마사이족들이 방문하는 병원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환자분은 매우 적지요. 그래서 저희는 한달간 선교사님께 열심히 스와힐리어를 배웠습니다. 배울수록 어렵고 부족하단 생각이 들고, 막상 현지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거나 한국어가 튀어나오고 있지만 계속 연습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언어를 배우고 진료실을 세팅하고 중간중간 진료가 급한 환자들을 보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9월 후반기부터는 매일 진료를 하고 지속해서 병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휴직하시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가신 김인혜 과장님께서 전해 온 소식

## ● Jamaa, Family, 한국에 남은 가족들



출발전에 나누었던 기도제목에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에 대하여 기억하시는지요?

친정어머니 곁에 친정아버지와 언니들의 가족이, 시아버지 곁에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열심으로 돕고 간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리 있지만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부족하고 작은 저희는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서 섬겨야 할 남은 시간이 많고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내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기도제목

1.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학교,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 일하고 관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도록
3.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4.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주께서 보살피고 치유해 주시도록

2024년 9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박다희 김인혜 박서진 박서현 드림



# 마음을 전하다.

방지선 간호사님의 배우자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재활간호팀(7W) 방지선 간호사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감상 후...

본 칼럼을 읽으며 느낀 것은 척수장애들의 실질적 애환과 함께 진정한 재활은 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본 칼럼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장애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인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장애라는 것이 불편한 것은 칼럼에서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일 것이다. 무감각으로 인하여 화상, 욕창, 배뇨 문제 그 외 등등 신체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편함이 어찌 다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치 못한다는 것이 장애를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크게 와닿는다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회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인식 개선, 사회적인 인프라 체계 확립, 국민적인 장애를 바라보는 문화의 발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스웨덴의 예시를 보며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여실히 느낀바이다.

추가적으로 재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삶의 질이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스레 다시 깨닫게 되었다. 본 칼럼을 읽고 느낀바로는 재활 역시 세분화 되었으면 하는 바 그리고 치료와 병행하여 사회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행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칼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자선단체/기부 받는 재단 역시 보다 세분화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한다면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단에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에게(척수장애인) 교육, 커뮤니티 장, 기부금의 실질적 쓰임새들을 공유한다면 더 나아가 개선 취지 및 개선 진행 상황까지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희망이 가져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 재활에 관심이 생긴 것이 뿌듯할 따름이고 보다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칼럼에 대해 감사하다.



#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열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10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 전복소라죽

이번 달은 “전복 내장을 넣은 초록 빛깔의 찐~한 맛이 나는
전복죽 한 그릇 주이소”라며

“몸 보양 하구로”라고 덧붙이신,

찐~한 맛이 으뜸인 전복소라죽 한 그릇을
밥상 위로 초대해 보았습니다.

싱싱한 전복에, 씹는 맛을 위해 소라도 살짝 더해
식감과 향, 색감이 절로 식욕을 돋게 하는 전복소라죽을
완성하였습니다.

먹기엔 편한, 그렇지만 과정은 편하지 않는 전복소라죽에는
기력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 타우린,
아르기닌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름철에 지친 몸의
기운을 회복 시켜주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젓고, 젓고, 저으면서 참여자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영양팀 팀원들의 마음도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과 마음을 모아 만든 이 한 그릇의 죽으로,
바다의 황제라는 전복의 애칭처럼,
황제의 기운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9.13)

## 손끝에 마음을 담아 소담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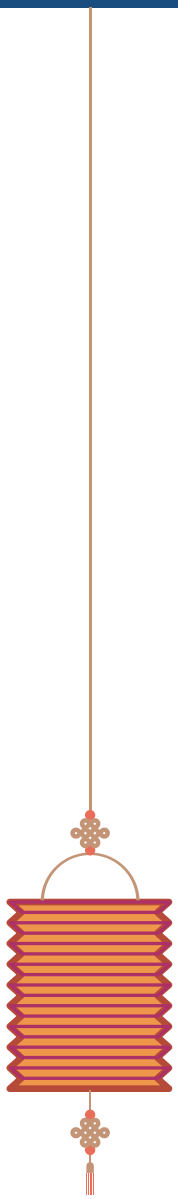
"...음식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배 속이 뜨뜻해야 살 힘도 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 살 힘 나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거예요..."

윤정은『메리골드 마음 세탁소』2023.p.172.

작가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
아...이 글귀...
제 마음이고, 영양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양팀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음식이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이 되어 주길 바라며,
언제나처럼 조신하고 우아하게ㅎㅎ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끝에 마음을 담아 소담하게 차려서 준비 하겠습니다.
한 끼의 식사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온전히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먹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이면 연휴의 시작입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나누며,
서로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하지만, 꽃은 반드시 다시 핀다.**

>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지라도, 마음속에서 당신이 찾는 푸른 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이라고 부르든 신비주의라고 하든, 당신이 추구하는 수뭄 보눔(summum bonum-'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라틴어)은 무엇인가?
> _류시화《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더숲)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푸른 꽃을 찾아다닌다. 세상 속에서는 현식에 적응하며 지낼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젠가 어떻게 되리라는 희망 하나쯤 품고 다닌다. 당신이 찾는 푸른 꽃은 무엇인가?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나팔꽃이 하루 피고 이내 입을 다물기까진 몰랐다. 사실 아는 것이 없었다고 봐야한다. 이 녀석이 덩굴식물인지도 몰랐고, 꽃은 7~8월에 핀다는 것도 몰랐다. 어느 날 보니 봉선화 줄기에 의지해 위로만 올라가는 녀석을 보고서야 알았다. 이놈은 다른 놈이구나.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이거 나팔꽃인거 같은데?'

약 두 달 전 내 사무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들였다. 흔히 말하는 다이소 2천 냥 화분이다. 화분에 흙을 주고, 씨앗을 심었다. 해바라기, 봉선화, 나팔꽃이다. 봉선화는 씨앗이 너무 많아서 따로 화분을 하나 더 마련해서 심었다. 해바라기는 씨앗 2개, 나팔꽃은 대여섯 개였다. 시간이 흐르고 해바라기와 봉선화에는 새싹이 돋았고, 나팔꽃은 결국 새싹을 틔우지 못했다. 생각보다 많은 봉선화 새싹에 분갈이를 해서 넓은 화분으로 옮겼고, 이때 틔우지 못한 나팔꽃의 흙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섞어서 옮겼다. 그리고 화분에는 봉선화만 이름을 적었다. 나팔꽃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잊혀져갔고, 봉선화랑 해바라기는 사이좋게 광합성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어느 날 숲이 우거진 봉선화 줄기사이로 잎사귀가 다른 모양의 새싹이 돋아난다. 약간은 삐죽삐죽한 봉선화 잎과는 달리 하트모양을 하고 있는 녀석이었다. 굵은 봉선화 줄기 옆에서 수줍게 하트를 날리며 위로 위로 자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녀석의 속도는 빨랐고, 키가 가장 큰 봉선화 줄기를 결국 재치고 나서야 존재감을 드러내며 창문에 달라붙었다. 너무 가느다란 줄기가 창문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무게중심이 자꾸 치우쳐 그 끝이 땅을 향해 꼬꾸라졌다. 나는 이 아이를 지탱해줄 막대를 찾아 나섰다. 사무실을 뒤적였다. 60cm가 넘는 지지대 하나를 화분 깊숙이 박아주고, 덩굴의 줄기를 지지대에 살포시 감아주었다. 녀석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자세로 어느새 지지대와 한 몸이 되었고, 옆 화분의 해바라기의 키를 따라잡을 모양새로 쭉쭉 뻗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느 때처럼 출근을 하고 화분을 들여다보는데, 나팔꽃이 한 송이 피었다. 딱 한 송이었다. 예쁘기도 했지만 신기한 마음이 더 컸다. 드디어 내가 사무실에서 꽃을 피우다니! 폰을 들고 사진에 담았다. 파스텔 보라색에 가까운 나팔꽃은 당당히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른 아침을 알리든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녀석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것을 다음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나팔꽃은 일명 바람둥이 꽃이라고 불린다. 꽃이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낮에는 활짝 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이나 밤새 그 자태를 드러내고, 아침이 되면 오므라든다고 한다. 나는 그 날이 이후로 나팔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 꽃이 정말 딱 하루만 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밤에는 다시 피고 해가 뜨면 움츠려 드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 확인을 위해 내가 사무실에 밤샐 수 없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매미는 성충이 되어 맴맴~ 소리를 내기 위해 약 6년의 시간동안 애벌레기를 거쳐야 한다. 대나무는 성장하기 위해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움직임 없이 버틴다. 나팔꽃은 정말 하루 반짝이기 위해서 남의 어깨를 빌려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일까? 아님 아직 나의 식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나팔꽃이 피었다 지기를 밤새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비록 씨앗심기라는 작은 출발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에게 꾸준히 물을 줘야하는 반복되는 행동과 새싹이 돋고 커가는 과정을 관찰해야하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이 초록이들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잠시나마 고민해본다. 화무십일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하지만, 꽃은 반드시 다시 핀다.

다시,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9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